

이덕일의 '역사의 창'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국적은?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문수 씨는 일제 때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어났다. 일제 식민지 때가 좋았다는 뉴라이트들의 단골 주장인 국가는 "주권, 국민, 영토가 있어야 성립된다"는 논리 그대로다. 1919년 4월 11일 건국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기 위한 논리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7월 11일 국무령 제1호로 '임시연통제'를 공포했다. 내무부 교통국 산하에 전국을 13도 12부 215군으로 나누는 연통제를 실시하고 국내에 특파원들을 파견해 임원을 임명했다. 연통제는 일제 경찰의 대거 투옥으로 붕괴되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라는 영토 내에 사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제도였다. 친일매국노들은 일왕의 신민(臣民)이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었다.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22일을 기점으로 산정한 것이다.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 정권과 박정희 정권이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맺은 모든 조약을 무효라고 선포했으니 일제 때 한국인들이 일본 국민이었다는 논리 자체가 국제적으로 부정된 것이다.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학생 및 시민시위 때문에 회담이 일시 중단되고 계엄령이 선포될 정도로 강력한 반발 끝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도 일제 식민지 시대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일제는 일본 국민이었다는 논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또한 고종 황제는 1899년 8월 17일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발표했다. 그중 제9조는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송주재하게 하고 선전(宣戰), 강화(講和) 및 제반 약조를 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국황제가 외국과의 조약 체결 당사자이기 때문에 고종 및 순종이 승인하지 않은 조약은 한일 기본조약 이전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봉창 의사는 임시정부의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고 일왕을 처단하러 가기 전 '선서문'을 작성했다. "나는 적성(赤誠 참된 정성)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敵國)의 수괴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 이봉창은 '선서문'의 날짜를 '대한민국 13년 12월 13일'로 적었다.

1931년 12월 13일이었다. 윤봉길 의사는 '선서문'의 날짜를 '대한민국 14년 4월 26일'로 적었다. 대한민국 국적의 이봉창·윤봉길 의사는 적국(敵國)과 싸우다 적국에 의해 사형당한 대한국민들이다. 지금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가 '적국(敵國)'이라고 칭했던 일제의 신민(臣民)이기를 원하는 반민족 세력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 요직을 독차지하면서 온갖 꾀변을 늘어놓고 있다.

1940년 프랑스 국방부 육군담당 차관이었던 드골은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자 영국으로 망명해서 '자유 프랑스 민족회'를 결성했다. 영국과 관계가 좋지 못했던 드골은 알제리로 재차 망명해 자유 프랑스 민족회의를 프랑스 국민해방위원회로 개편해 알리 지로 장군과 함께 공동위원장에 취임했다. 드골은 1944년 임시정부 주석에 취임했다. 만일 프랑스에서 나치의 강점하에 있던 프랑스 국민들이 독일 국민이었다고 나치의 입장에서 서서 주장하는 사람을 각료로 지명한다면 그 즉시 정권은 붕괴될 것이다.

프랑스는 나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한 반면 한국은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 때 친일매국노들이 도리어 정권을 장악했던 후과(後果)가 사회 곳곳에 암세포로 살아 있는 것이다.

<순천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치아 마모의 원인과 해결방법



허유리 조선대치과병원 교수

이나 이악물기 습관이 있는 환자에서 더 심하게 관찰되며, 치과를 찾는 마모환자 중 많은 경우가 교모에 해당된다. 교모의 경우 정상치아처럼 튼튼해달같이 맞물리는 것이 아니라, 맞물리는 치아와 편평한 면을 이루면서 닿는 게 관찰되며 치아의 씹는 면이 깨져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치아의 바깥층이 닳아지며 신경과 가까워져서 치아가 시릴 수 있으며, 저작력이 감소할 수 있다.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는 경우도 있다. 또한 치아가 닳아져서 정상 치아보다 짧아지기 때문에 심미적으로도 좋지 않다. 이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씌워주는 크라운 치료를 통해 원래의 형태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더 이상의 교모 진행을 막는 방법이다.

치아가 과도하게 짧은 경우에는 짧아진 길이만큼 치아의 높이를 다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체 치아의 높이를 높여서 수복해주는 전악 보철 수복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구강 내에 있는 모든 치아의 수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갈이와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장치를 끼는 것이 재발을 방지해 준다.

마모는 치아와 외부 물질간의 마찰에 의해 치아 표면이 닳아지는 것을 말한다. 잇솔질을 과하게 할 경우, 부적절한 치실 사용과 이쑤시개 사용시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직업적으로 못이나 머리핀 등의 금속을 입에 자주 물고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손톱을 깨무는 습관을 가진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식습관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단단한 곡물류를 자주 섭취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외부 물질과

치아가 닿는 부분에 마모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마모부위가 국소적이라면 그 부위만 레진 등을 이용해 수복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치과치료 외에도 올바른 잇솔질 방법, 치실 사용을 알아야 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재발되기 쉽다.

부식은 화학적 작용에 의해 치아 표면이 닳아지는 경우로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이 있다. 내적인 원인으로서는 구토를 자주하는 경우에 산성인 토사물이 치아 표면에 닿으면서 마모를 일으킬 수 있으며, 썩신이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입덧이 심한 임신부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치과 치료와 병행하여 소화기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외적인 요인으로는 땅고나 감귤류 같은 과일, 탄산음료, 신맛의 캔디 등을 너무 자주 먹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요즘에는 탄산음료로 인한 부식으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식은 전체적으로 치아를 마모시키며, 마모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며, 적은 양의 마모로 인한 일시적 치아의 시린 증상은 지각과민 처치제를 통한 증상완화와 습관조절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교모, 마모, 부식 등은 대개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치아가 닳아진 경우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치료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치아가 닳아진 경우에 방지하게 되면 치아는 점점 더 닳아져 나중에는 전체 치아를 다 씌워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기에 치과 치료를 받을 것을 추천한다.

기고

초등의대반과 기득권 교육



김춘식 동신대 교수 전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과연 인간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윤리에 적합한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아가 사교육과 경쟁 교육의 심화로 인해 전 국민이 경쟁심리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이 초등의대반은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결과라고 한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천민자본주의적 경쟁질서와 이에 편승한 고질적인 경쟁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어, 로스쿨에만 입학하면 요즘 순서대로 '검사', 판사, 변호사가 되어 기득권층으로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다는 왜곡된 신념이 있다. 마찬가지로, 의대만 가면 높은 경제적 풍요가 보장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물질주의적 확산도 존재한다. 둘 다 기득권 수호라는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이러한 왜곡된 욕망은 이전 왕조시대의 과거제도과 같은 신분 상승 구조에서 분화된 소위 지배층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다. 과거제도가 시험제도를 넘어 당시 사회적 이동성의 통로로 작용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출세지향적 학벌주의와 고시주의로 변질되어 오늘날까지 한국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교육 시민단체가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 응답자 중 63.3%가 '초등의대반은 부정적이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이제 초등의대반과 의대열풍을 넘어 '기득권', '경쟁', '지배' 등 우리 사회의 교육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초등학생 대상의 의대선행학습은 경제적 부담과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며, 공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 오죽했으면 국회에서 '초등의대반 방지법'까지 발의되었겠는가.

사실, 기자의 표현처럼 현재 수험생과 대학생, 직장인을 가리지 않고 의대에 가기 위해 임시 학원을 찾는 '의대 열풍'과,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리고 휴학과 사직을 선택하는 '의대란' 사이를 관통하는 것은 바로 기득권(既得權)이다. 기득권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이미 차지한 권리와 권익을 의미한다. 없는 사람은 갖고 싶고, 가진 사람은 뺏기지 않으려 하는 특징을 갖는다. 현재 동일한 미래를 지향하는 이 사회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의사인 사람은 의사로서의 삶을 거부하는 이 모순된 상황은 2024년 한국 사회의 왜곡된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바로 '초등의대반'은 이러한 기득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최악의 아동판 결투장이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사교육이 꼭 필요하다면, 삶에는 늘 새로운 도전이 있고, 도전하는 삶에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르기에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사교육, 또한 서로를 지탱하고 위로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배려하는 공동체를 위한 사교육 열풍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왜 우리 청소년들이 일부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 정신적·사회적 균형이 깨진 사회를 살아야 하는지, 모든 교육 주체들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社說

국가시설인 군공항의 이전 정부도 나서주길

군공항은 갇내하기 어려운 소음을 유발하는 탓에 인근 주민들은 법적으로 보상을 받고 있다. 여기에 도시 발전 등으로 인해 군공항이 이전할라치면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들은 결사반대하고 나선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엄청난 혜택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소음으로 인해 삶의 질이 파괴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 문제를 해당 구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도 더디기만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공항은 국가시설인 만큼 군공항 이전 문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시설의 소유 주체도, 운영 주체도 아닌 지방 정부에 까다로운 공항 이전 문제를 떠넘긴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는 논리이다.

군공항은 갇내하기 어려운 소음을 유발하는 탓에 인근 주민들은 법적으로 보상을 받고 있다. 여기에 도시 발전 등으로 인해 군공항이 이전할라치면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들은 결사반대하고 나선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엄청난 혜택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소음으로 인해 삶의 질이 파괴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 문제를 해당 구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도 더디기만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공항은 국가시설인 만큼 군공항 이전 문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시설의 소유 주체도, 운영 주체도 아닌 지방 정부에 까다로운 공항 이전 문제를 떠넘긴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는 논리이다.

국회의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그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영·호남지역 군공항 이전 한계와 대책'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군공항은 국가안보시설이

고, 민간공항도 국가시설이지 지방자치단체 시설이 아니다"면서 "그런데 이런 시설(국가시설)을 길게는 50년 이상 가지고 있던 도시들에게 공항을 옮기도록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와 전남도, 이전 대상지인 무안군 등 3개 지자체가 얽혀 있는 사업인데다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무안군 주민들로서는 시·도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한 이전 문제를 해당 구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도 더디기만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공항은 국가시설인 만큼 군공항 이전 문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시설의 소유 주체도, 운영 주체도 아닌 지방 정부에 까다로운 공항 이전 문제를 떠넘긴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는 논리이다.

관객없는 글로벌 음악축제 정체성 고민해야

올해로 15회를 맞은 '2024 ACC 월드 뮤직 페스티벌'(이하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사흘간 ACC 예술극장 빅도어 스테이지 등지에서 펼쳐졌다. 올해 월드뮤직 페스티벌에는 '김장완 밴드'와 '카이한 칼호르 트리오', '이베리콰이어' 등 30여 팀이 참여했다.

드에 대한 홍보 미비나 맹위를 떨치는 폭염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월드뮤직 페스티벌은 국악 장르 중심의 레퍼토리로 편성됐는데 이는 '전주 세계 소리축제'와 차별화되지 않는다.

올해 월드뮤직 페스티벌은 글로벌 음악 축제를 표방하며 화려한 라인업을 선보였지만 관객들의 호응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ACC재단에 따르면 월드뮤직 페스티벌 평균 종합 객석점유율은 65.2% 수준이었다.

음악계 전문가들은 지난 2010년부터 15화째를 이어오는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광주를 대표하는 진정한 글로벌 음악축제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겉만 화려하고 내용은 빈약한 축제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ACC재단은 올해 월드뮤직 페스티벌 진행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가 담겨있는 오늘의 음악', 월드뮤직을 광주 시민들과 향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관객과 공감하는 글로벌 음악축제로 거듭 나길 기대한다.

無等鼓

오래 전 보성 출신 김은성 작가가 희곡을 쓴 연극 '함익'을 만났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재해석한 이 작품에는 12세기 덴마크의 왕자 대신, 대한민국의 재벌 2세이자 대학교수로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여자 함익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극 중에서 그가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인 자신의 분신과 주고받는 대사를 들을 땀 마지 않던 나만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느낌이 들어 울컥하곤 했다.

년을 맞아 전집을 기획했는데 전집의 특징은 셰익스피어 희곡의 특징인 운문을 그대로 살린 번역이라는 점이다. 출간 기자 간담회에서 최 교수는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은 내면의 변화가 다르다. 소리 내어 읽어보면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걸 경험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인생을, 자기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무대에 오르는데 올해는 유난히 그의 작품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 팔순이 넘은 전무송·박정자 등 노배우들의 등장만으로도 존재감을 보여준 신시컴퍼니의 '햄릿'이 있었고, 국립극단의 '햄릿'에는 왕자 대신 궁중 햄릿과 남자 오페라가 무대에 섰다. 10월에는 배우 조승우가 예술의 전당이 제작한 '햄릿'으로 24년만에 연극에 도전한다. 최근 국내 셰익스피어 권위자인 최홍철 연세대 명예교수가 '셰익스피어 전집'(전 10권·5824쪽)을 완간했다는 소식이다. 민음사는 2014년 셰익스피어 탄생 450주

년을 맞아 전집을 기획했는데 전집의 특징은 셰익스피어 희곡의 특징인 운문을 그대로 살린 번역이라는 점이다. 출간 기자 간담회에서 최 교수는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은 내면의 변화가 다르다. 소리 내어 읽어보면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걸 경험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인생을, 자기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얼마전 셰익스피어 작품을 함께 읽는 화순군청 공무원들의 모임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취재한 적이 있다. 매일 두 차례씩 모여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등을 읽고 연극 '맥베스'를 관람한 그들도 어쩌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졌을 지도 모르겠다.

고전 읽기 책 '금빛 종소리'에서 김하나 작가는 마흔이 넘었다면 어느 짙은 밤 위스키 한잔을 앞에 두고 '맥베스'를 (다시) 읽어보라고 권한다. 이 가을, 셰익스피어를 펼쳐두고 "통째로 수많은 인생을 삼킨 것 같은 글"을 만난다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눈을 가질 수 있겠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漢洙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기부 220-0634 | 문화부 220-0624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 여론매체부 220-0661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 디지털부 220-0697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